SOCIETY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80년 그날처럼"…불의에 맞선 택시 경적 재현

광주 서구 '나눔누리숲' 조성 '역사마루·노을마루'로 구성

광주 서구가 시민들이 자연과 정원을 직접 체험하고 여가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했다.

20일 서구에 따르면 최근 불법 시설물로 방치돼 있던 서창동 하천 부지를 역사와 휴식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 '나눔누리숲'으로 새롭게 꾸몄다.

주민을 위한 쉼터이자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나눔누리숲은 그간 무단 점유 시설과 적치물로 도시 미관과 안전을 해쳤다.

특히 나눔누리숲은 일제강점기 당시 서창나루의 마지막 뱃사공으로 활동했던 '박호련'의 나눔 정신에서 출발했다.

서구는 이 숲을 박호련의 삶과 나눔을 테마로 한 '역사마루'와, 노을 풍경과 감성을 담은 '노을마루'로 구성했다. 두 공간은 계단으로 연결돼 과거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에서 미래의 시민 오블리주로 이어지는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담아냈다.

'역사마루'에는 나룻배 광장과 나눔정원, 착한계단 등이 조성됐고, '노을마루'는 야외무대, 피크닉존, 산책로가 어우러진 문화 쉼터로 꾸며졌다. 윤용성 기자

'민주기사의 날' 행사…무등경기장~금남로 행진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조속한 이행 촉구도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불의에 맞서 항쟁한 선배 기사들의 오월 정신을 계승하고 넋을 기리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20일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 북구 임동 무등경기장 앞에서 제45주년 '민주기사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렸다.

민주기사의 날은 1980년 5월20일 계엄군의 만행에 분노한 택시 기사들이 무등경기장 앞과 광주역에 집결한 뒤 200여대의 택시를 몰고 금남로를 거쳐 도청까지 차량 시위를 벌인 날이다. 당시 항쟁에 참석했던 기사들이 주축이 돼 5·18민중항쟁 민주기사동지회를 창립했고, 5·18민중항쟁 당시의 차량 시위를 재현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날 행사는 1980년 5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승화하는 1부 기념식과 5월20일 차량시위를 재현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오후 3시가 가까워지자 전국 각지에서 출발한 택시가 하나둘씩 무등경기장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금세 인근 유운교까지 차량으로 가득 찼다.

이날 행사에는 택시, 일반 차량 70대를 비롯해 택시기사, 시민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기념식의 마지막 순서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자 참가자들은 일제히 태극기를 흔들며 노래를 따라 불렀다.

이후 태극기 등을 붙인 차들은 전조등을 켠 채 무등경기장에서 80년 5월 최후의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으로 향했다.

행렬의 선두에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택시로 사용된 포니 1대와 스텔라 1대가 나섰다. 이들은 45년 전과 똑같은 길로 줄지어 무등경기장을 출발해 광주역과 유동사거리, 금남로3가를 거쳐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까지 약 4.5㎞를 행진했다.

30여분 간 이어진 차량 행진은 옛 전남도청에 도착, 해단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행사에 참여한 이행기씨(74)는 민주기사의 날을 창립 멤버 중 한 명이다.

이씨는 "5·18민주화운동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됐다. 5·18은 이제 광주만의 역사가 아닌 전국, 전 세계 민주주의의 역사다"며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라는 과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새로운 정부에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또 "오월 영령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 12·3비상계엄 때는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렸으니 이제는 산 자가 죽은 자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은 "1980년 5월 광주의 거리를 달리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버스와 택시 기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며 "그날의 광주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절망 속에서도 공동체의 온기를 지켜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민이 곧 국가이고, 평범한 이들의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는 진리를 민주 기사들이 몸소 증명했다"며 "우리는 그 뜻을 이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 기억은 곧 행동이고, 계승은 곧 실천이다. 그날의 헌신과 용기를 마음 깊이 새기며 오월 정신이 미래세대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백금 뛰어넘는 차세대 연료전지 촉매 개발

GIST-켄텍 공동연구팀, 성능·내구성 동시에 잡아 미래 친환경 에너지기술의 핵심 소재로 활용 기대

국내 연구진이 기존 백금 촉매보다 우수한 전기화학 성능과 내구성을 가진 차세대 연료전지용 촉매를 개발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화학과 임현섭 교수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홍종욱 교수 공동연구팀이 팔라듐 셀레나이드(Pd-Se) 기반의 혼합상 나노구조체를 이용해, 산소환원반응(ORR)에서 기존 상용 백금 촉매(Pt/C)보다 우수한 전기화학 성능과 내구성을 가진 차세대 연료전지용 촉매를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서로 다른 결정상들이 함께 존재할 때, 즉 혼합상 물질에서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에 주목한 것으로, 기존 백금 기반 전기촉매를 대체할 수 있는 고성능·고내구성 촉매 설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임현섭 교수

홍종욱 교수

연료전지와 같은 고급 에너지 변환 기술에 적용될 수 있는 혼합상 물질의 효과적인 설계 전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Pd-Se 촉매는 대부분 단일 결정상 중심으로 연구됐기 때문에 서로 다른 Pd-Se 결정상 간의 상호작용이 촉매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혼합상 구조가 전자 이동 경로를 개선하고, 반응 활성 부위를 효과적으로 형성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새롭게 밝혀냈다.

또 내구성 테스트 2만 회 후에도 반응 전압의 변화가 단 7mV에 불과해 장시간 사용 환경에서도 안정성이 뛰어남을 확인했다.

임현섭 교수는 "이번 연구는 서로 다른 Pd-Se 결정상이 조화를 이루며 전기화학 반응의 각 단계를 최적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험과 이론 양면에서 입증한 사례"라며 "이 기술은 고성능 연료전지, 메탈에어 배터리, 수전해 시스템 등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핵심 기술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GIST 화학과 임현섭 교수와 홍석원 교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홍종욱 교수가 지도하고 GIST 화학과 김현주 박사과정생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전력공사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았다. 김인수 기자 joinus@

교통안전 체험교육 받는 어린이들 20일 광주 북구 오룡동 어린이교통공원을 찾은 유치원생들이 광주어린이안전학교(회장 김은미) 강사들로부터 올바른 횡단보도 건너기 등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받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교육청 "청렴 평가, 본청까지 확대"

기존 지원청·직속기관 대상서 범위 넓혀…첫 시행

광주시교육청이 본청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자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2025년 반부패 청렴 노력도 평가 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12월까지 본청 15개 부서와 2개 교육지원청, 12개 직속기관 등 총 29곳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한다.

지난해까지는 2개 교육지원청, 12개 직속기관 등 총 14곳에 대해서만 진행했으며, 본청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가 내용도 기존 7개 영역, 19개 단위과제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방향과 일원화 한 내용으로 3개 영역 10개 지표로 전면 개편했다.

3개 영역은 △추진체계 △추진실적 △가감점 등이며, 10개 지표는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 △추진기반 마련 회의 운영 △청렴 정책 및 자율적 개선과제 노력 및 효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청렴연계 자체 사업 추진 △제도개선 추진 실적 △반부패·청렴(갑질) 교육 이수율 △대면교육 이수율 △청렴시책 사례 공유·확산 노력 △기관(부서)장 자체 청렴도 평가 등이다. 특히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청렴연계 자체사업 등 고위직의 관심과 노력도를 측정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30점을 배정하는 등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 밖에 권익위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여도, 적극행정 및 제안제도 참여 등에 대해서는 가점을, 비위행위 처분, 평가자료 지연 제출 등에 대해서는 감점을 부여한다.

평가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하며, 청렴 우수기관과 부서에는 '청렴인증 현판'을 수여한다. 최우수와 우수기관으로 추천받으면 유공자 표창 심사 시 우대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평가는 모든 부서가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동구 '여행자의 집' 클래스 '머물다, 가' 프로그램 진행

광주 동구가 오는 11월까지 여행자의 집(ZIP)의 원데이 클래스 프로그램 '머물다, 가(家)'을 진행한다.

여행자의 집(ZIP)은 지난 2022년 7월 개관 이래 누적 방문객 10만여명이 방문한 광주 대표 콘텐츠형 관광안내소로, 도심 속 여행자 쉼터이자 동구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첫 번째 기획인 '머물다, 가(家)'는 광주를 찾은 여행자가 여행자의 집에서 머물며 광주의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원데이 클래스' 프로그램이다.

지난 3월 시작해 11월까지 진행되며 300여명의 광주 여행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5월 현재까지 총 8회차 진행, 80여명이 참여했고, 3월 시작 이후 5월까지 전 회차 모두 예약 매진을 기록하며 여행객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연인, 친구 등의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달 26일 진행된 5회차 '친환경 클레이 이오난사 화분 만들기' 프로그램은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끌어 평점 '5점 만점' 평가를 받았으며, 다음 시즌에도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